

무분별 친환경 인증 비리 질타...경찰이 금고털이 “불안해 살겠나”

국감 초점

허술한 친환경 인증 문제 놓고 의원-지사 설전

토요그림경매·은퇴자도시사업 우수 시책 꼽혀

전라남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진행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F1 대회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친환경 인증, 공직 비리 등 전남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반면, 관광객 유치·예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토요 그림경매와 담당관을 배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 도시사업 등은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 의원은 최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리와 관련해 장성부군수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전남지역 농민은 줄어든 반면 경지가 전년보다 4500㎡(1500만평)나 증가했는데 이는 도로, 저수지, 묘지 등이 친환경 경작지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는 “장성군의 경우는

34%에 이어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덕홍(충북 보은·옥천·영동)도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구급대원 방산보호장비 65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현재 34벌뿐이며, 이중 66%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반면 토요그림경매와 행복마을 조성, 은퇴자도시 조성 등의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은 “토요그림경매는 예상다운 뛰어난 시책이며, 행복마을 등의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준영 전남 지사와 김민기 의원이 허술한 친환경 인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이 박 지사에게 “(전남도에서 미리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왜 장성 부군수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박 지사는 “시비조로 묻진 말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이찬열(민주당·경기 수원갑) 감사반장이 박 지사에게 ‘어휘 선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한 때 국감장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각 실·국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장기각률 전국 최고... 안일한 인권의식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전무 따져

전남지방경찰청

28일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전남청의 안일한 인권 의식 ▲여성경찰서 직원의 금고털이 사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8일 전남지방경찰청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근거로 치밀하지 못한 수사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2.4%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이 높다는 건 마구잡이 영장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구속해놓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수사 편의성만을 내세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남 경찰에 ‘비리 경찰’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던 여성경찰서 현직 경찰의 금고털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난해 우체국 금고 털이 사건에 현직 경찰이 가담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

는 일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여성경찰이 반부패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현실을 반영한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의 의원은 “또 비위 경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족사·실종·자살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관련 유족들이 비위 경찰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한 뒤 “여성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검찰의 형평성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남청에서 대리 사격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5명은 총을 잘 쏘는 죄로 부탁을 받고 썼는데 징계를 받았다. 정작 부당한, 지시한 상관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청과 경성북도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가 전무하다”면서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990개 스킵존에 대한 무인 단속기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사정·감사 라인 PK독식”

김진태 검찰총장 지명 반발

“누가봐도 비정상 극치 인사”

야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불균형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갑 사인, 김·경, 국제청 등 4대 기관 고위직의 40%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대통령과 100%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실종을 넘어 별

종했다”며 “사정·감사 라인을 PK(부산·경남) 출신이 독식, ‘신(新) PK시대’가 도래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 극치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타령인사가 다시 한번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경남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이정호 수원지검 형사1부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

혹 특별수사팀장 임명에 대해 “코드 인사에 따른 정적검사 부활을 경계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부산·경남)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TK(대구·경북) 출신의 공안통 검사로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며 “초원복직 사건 주역인 김 실장의 전력과 비취불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광양 땅 보유 배경 쟁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고강도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는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출신지 이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보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전년(23억3200만원) 대비 9000만원 늘어난 24억2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중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남지역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경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데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수 소재 밭과 대지 985㎡를, 배우자 명의로는 광양에 일야 1만3436㎡를 보유 중이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들 토지 가액을 1억80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토지 가액이 크지 않은 데다 부동산 구입 후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나 재산

증식 의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여수 땅은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싶어 매입했고, 부인 명의의 광양 땅은 장인께서 돌아가신 뒤 처남 주도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이듬해부터 1987년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가 여수 땅을 매입한 시기는 순천을 떠난 뒤인 1988년이다. 부인 명의의 광양 임야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89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이외에도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도 청문회 주요 검증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대해 1977년 6월 육군 일병으로 13개월 만에 전역했다. 짧은 복무 기간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시력 등 문제가 있어 단기 사병(방위)으로 복무했지만 군필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외아들은 2005년 고도 근시로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9년 3월 ‘사구체 신염’으로 5급 판정을 받은 군 면제됐다.

사구체 신염이란 신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한때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웠던 병명이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입대를 지원했으나 질병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종두

豊年の 눈물

투자, 자산관리·부동산개발, 외식투자, 실물투자, 금융투자의 안전한 길잡이

특별한 꿈을 꾸고, 특별한 꿈을 이루어 주는 전문회사

투자, 자산관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탁월하고 정직한 전문가 그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귀하(사)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그룹.
지금 당장 상담하십시오.

“연수익률 30%~100%는 되어야 대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 투자철한 겁니다”

특별한 꿈을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남다르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귀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원캐피탈그룹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꿈을 꾸십시오.
인생은 한번 뿐입니다.

☎모음번호: 152-2222-1111 (LANOVIA) 152-2222-2222 (메블러스)

회사명	모집인원	공통지원자격	비고
원캐피탈그룹(주)	0명	·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성별제한이 없습니다.	
코인베스트(주)	0명	· 국적제한이 없습니다. ·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직해야 합니다.	
원테이블스(주)	00명	·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외국어-영어, 중국어)	
더리치아카데미(주)	00명	· 건강도 필요합니다. · 꿈은 꼭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투자 프로젝트

<p>사업명: 000아파트 신축 공사</p> <p>규모: 200세대</p> <p>투자액: 30억</p> <p>예상수익률: 170%</p>	<p>사업명: 0000 외식 사업</p> <p>규모: 80평</p> <p>투자액: 3~5억</p> <p>예상수익률: 월 3%(연 36% 지속수익)</p>	<p>사업명: 000복합시설 신축공사</p> <p>규모: 연 5,000평</p> <p>투자액: 15억</p> <p>예상수익률: 800%</p>
--	---	---

투자·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W 원캐피탈그룹주식회사

Won Capital & Investment Co., Ltd.

대표전화 : 82, 062, 653, 7500
상담전화 : 010, 3626, 0309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85-2 원캐피탈그룹 빌딩 2F